

신발은 '생고무신' 1등 상품은 '쌀통'...결승선에 물양동이



1975년 주부들이 장만하고 싶은 살림 1순위로 꼽히던 쌀통이 대회 1등 상품으로 등장했다.

협준한 화순 너릿재 '魔의 코스'

1992년 영광중앙국교 1~6위 싸슬이
光日 2연패 문흥주, 동아마라톤서 한국新

광주일보 3·1 마라톤 50년

반세기 역사 화제 만발

협준한 고갯길을 달리는 '마의 코스'였고, 1만 여명이 봄을 깨우는 '봄날의 질주'이기도 했다.

반세기를 이어온 3·1절 전국 마라톤의 역사는 이런저런 이야기와 사연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1회 대회는 42.195km가 아닌 32km를 뛰는 단축 마라톤이었다. 금남로를 출발선으로 해 화순 경찰서 앞 사거리를 돌아오는 코스는 산등성이를 넘어야 하는 '마의 코스'로 불렸다. 당시 너릿재터널이 뚫리지 않아 선수들은 4km의 협준한 고갯길을 넘어야 했다.

전국의 마라톤 코스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코스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첫 대회에서부터 14세의 완주자가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광주서중에 재학중이던 백석운 군이 그 주인공이다.

길고 험난한 코스를 달려야 했던 이들에게 신발 역시 고역이었다. 지금처럼 고급 스포츠화가 없었던 시절이라 선수들은 생고무가 부착된 신발을 신고 뛰어야 했다. 완주 후 발이 물집 투성이가 되기도 했지만 선수들은 3·1 마라톤 대회를 위해 야밤의 훈련도 마다하지 않았다. 당시 3·1 마라톤처럼 유명한 대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 선수들은 우승을 위해 동료 물레야밤의 연습을 하기도 했다.

지금은 마라톤 코스 곳곳에 마련된 음수대도 상상할 수 없던 시절이다. 결승선에 들어온 선수들을 기다리는 것은 양동이였다. 선수들은 양동이에 담긴 물을 바가지로 떠 마시면서 갈증을 달랬다.

선수들이 트로피와 함께 집에 가져가고 싶어하던 부상도 있었다. 70년대에는 주부들이 장만하고 싶어했던 살림 1순위 '쌀통'이 대회 1등 상품이었다.

3·1 마라톤은 정광고, 서석고, 조대부고, 광주상고 등이 학교의 자존심을 놓고 벌이는 경쟁의 장이기도 했다.

모교의 이름을 걸고 뛰는 선수들과 응원 나온 동문들로 3·1 마라톤이 열리는 날은 곳곳에 미니 동문회가 펼쳐졌다. 33회 대회가 열렸던 1992년은 영광중앙국교의 해였다. 대회에 출전한 6명의 선수가 1위부터 6위를 싸슬이하면서 시상대에 나란히 섰다.

1971년과 1972년 열린 12·13회 대회에서는 '형님 만한 아우'가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조대부고 학생이었던 문흥주는 2년 연속 일반부 형님들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재목의 탄생을 알렸다. 그는 1974년에는 동아마라톤대회에서 2시간16분15초의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1회 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던 선수는 54명. 엘리트 선수들이 동계 훈련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름을 알리던 무대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생활체육 현장으로 저변이 넓혀졌다. 달리기 열풍 속에 5km 건강 달리기와 10km, 하프코스, 풀코스로 세분화된 2000년대에는 1만 여명의 마라토너들이 광주를 찾아 봄날의 질주를 즐겼다.

많은 이야기를 담은 3·1 마라톤은 이번 봄 하프코스과 풀코스로 나눠 진행된다. 전국의 실력 있는 마라토너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3·1 마라톤의 50번째 날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코스 주변 음수대는 생각지도 못했던 1974년 그 시절, 결승선에 들어온 선수들이 양동이에 담긴 물을 바가지로 떠 마시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1992년 제33회 광주일보배 정달 마라톤대회 남초동부에서 영광중앙초등학교팀 전원이 1~6등까지 휩쓰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5 "우리가 뛰다"

청주 무심천마라톤클럽

"情으로 '똥똥' 12년...청주 마라토너들 광주서 새 봄 엽니다"



청주 무심천마라톤클럽 회원들이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로 2015시즌을 힘차게 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무심천마라톤클럽 제공>

무심천 즐기따라 달리며 실력 키워

회원 68명 전원 풀코스 완주자

"30명 참여...단결된 힘 보여줄 것"

새봄의 질주를 위해 무심천마라톤 클럽 회원들이 광주 나들이를 준비하고 있다.

청주에서 부지런히 길을 달려올 회원들은 30명. 이들은 제50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에서 2015시즌의 기지개를 켜겠다는 각오다.

무심천마라톤 클럽의 역사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달리기를 사랑하는 청주지역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 질주를 시작했다. 클럽의 이름처럼 '무심천'은 이들이 달리기 실력을 키우는 곳이다.

청주 시내를 관통하는 무심천 하상도로와 청남대 주변이 이들의 주요 활동 무대다. 수요일 저녁과 일요일 새벽이면 부지런히 운동화 끈을 동여맨 이들이 모습을 볼 수 있다. 꾸준한 훈련으로 실력을 키워가는 것은 물론 무심천 주변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건강도 챙기고 있다.

클럽이 결성된 지 12년이 되면서 다양한 이들이 모여 무심천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군인, 경찰, 세무공무원, 의사, 사업가, 회사원, 가정주부 등 다양한 직업의 68명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연령대도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다. 다른 직업과 나이의 이들이 한데 모였지만 달리기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서 가족이나 다름 없는 회원들이 다.

가족 같은 훈훈한 분위기의 클럽이지만 결승선 앞에서는 한치 양보 없는 실력자들이다. 68명 회원 모두 풀코스 완주자이고, 20여명의 회원은 울트라 100km 완주까지 이뤘다.

특히 실력에 열정까지 갖춘 김화영(여·52). 이현구(48) 회원은 각종대회에 나가 상을 휩쓸며 무심천클럽의 에이스로 맹활약하고 있다.

무심천마라톤 클럽의 조항민 사무장은 "각종 대회에 30~40명 이상이 단체로 출전하는 등 달리기 대회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클럽이다. 대회에서의 단결된 모습은 물론 회원들의 애·경사시에도 모든 회원들이 찾아가 슬픔과 기쁨을 나누며 끈끈한 정으로 뭉친 클럽이기도 하다"며 "이번 대회에서도 단결된 모습으로 즐겁고 건강한 질주를 하겠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